지정학적 측면에서 이해한 지중해의 지속 가능한 평화 함의

장훈태 (백석대학교, 선교학)

Ⅰ. 들어가는 말

지중해 지역은 역사적·지정학적으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곳일 뿐 아니라 경제적·국제적으로 분열(Disintegration)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중해 지역은 현재 전후(戰後)에 형성된 지정학적 체계가 붕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체계의 형성이 일어나면서 미래가 불안정한 상황이며, 이 상황은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역사적으로 지중해 지역은 이성의 빛, 곧 '너 자신을 알라'로 대표되는 철학의 탄생과 퓌지스(physis, 현대의 nature)[1]의 탐구, 존재와 생성, 현상과 실재, 이상과 현실을 논하는 철학 세계의 산실이었다. 이 지역에서는 신과 인간 그리고 세계라는 명제를 논하는 '삶의 기예'로서의 철학으로 회의주의와 스토아 철학이 발흥했고, 구원의 갈구로 인해 그리스·로마의 종교와 신플라톤주의가 활성화되었을 뿐 아니라 유대교에서 기독교 세계로의 도래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곳이다. 지중해는 또한 이슬람 세계의 철학 체계가 구축된 곳으로 이슬람 학문의 형성과 이븐 루쉬드의 철학과 유대교와 페르시아 철학사상이 왕성했던 곳이다. 또한 스콜라 철학이 흥륭(興隆)했던 지역이기도 했다.[2] 이처럼 지중해는 철학적으로 세계 각국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던 곳임에 틀림이 없다.

지중해, 특히 마그레브 지역은 푸른 바다와 아랍풍 음악이 흘러나오는 오리엔탈 풍의 휴양지로 알려져 있다. 레바논의 베이루트로 대표되는 마그레브 지역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이국적 풍경, 색다른 아랍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특징으로 인해 유럽과 중동 사람들이 자주 찾는 최고의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지금 지중해 지역은 외국인의 발길이 뜸해졌다. 그 이유는 지중해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전쟁으로 인해 이 지역에서는 평화(平和)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지중해는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은 지역이다. 현재 군대의 조직화 및 용병화, 전쟁의 상습화 간의 관계라든가, 고대로부터 중세 지중해 지역 군사조직의 확대는 현대 아랍세계의 갈등과 전쟁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3]
지중해는 어떤 한 시대의 문명과 종교, 어떤 하나의 언어로 형성된 곳으로 대표될 수 없는 곳이며, 다양한 시대의 문화와 종교, 정치, 국제관계와 언어들이 하나로 엮어진 복합적인 곳이라는 인식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 같은 차원에서 지중해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평화적 함의를 찾는 것은 그리 쉬워 보이지 않는다. 다만, 지중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사건 중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고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1) 이정우, 『세계철학사 1』 (서울: 도서출판 길, 2018), 53의 각주 4번 참조.; 서구의 모든 기초학문의 용어들은 서구에서 출발했다.
2) 이정우, 『세계철학사 1』, 25-848을 참조하라.
3) 최춘식 외 4인, 『지중해의 전쟁과 갈등』 (경기: 한국학술정보(주), 2012)을 참조.

본 고는 지중해의 지정학적 위치와 사회문화적 현상을 통해 이 지역의 평화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지중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먼 미래에 가능할 것이다.

Ⅱ. 지중해의 지정학적 얼굴

1. 문명의 교류유형화 지역

지중해는 지정학[4]적으로 아프리카·아시아·유럽의 3개 대륙에 둘러싸여 있다. 서쪽은 지브롤터 해협을 통해 대서양과 연결되고, 동쪽은 수에즈 운하를 통해 홍해와 인도양과 연결되며, 북쪽은 다르다넬스·보스포루스 해협을 통해 흑해와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볼 때 지중해를 유럽 지중해(European Mediterranean)로 부를 정도로, 고대로부터 중세 말까지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유럽 문명의 중심역할을 했다.[5] 현재도 지중해는 동서양의 관문지역으로 자원과 산업, 해로(海路)와 항공로가 연결되어 있어, 동서양의 경제와 정치[6]를 초월해 전체적인 세계질서를 조절하고 있다.

또한 지중해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토착문화와 이(異)문화의 융합 현상이 나타나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이 지역은 다양한 종족의 집결로 인한 언어 간 혼효(混淆) 현상이 끊이지 않을 뿐 아니라, 전쟁과 정복, 외교와 무역을 통한 종교와 문화 간의 교류가 활발했다. 지중해는 지정학적으로 이(異)문화를 비롯한 언어, 종교, 문화, 교육의 교류유형화 지역이라 할 수 있다.[7]

이처럼 지중해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지정학적으로 서구 문명과 동양 문명 그리고 이슬람 문명 간의 접촉이 빈번하기 때문에, 중동·이슬람 지역의 분쟁의 범주와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지중해를 둘러싼 분쟁은 국경, 종교, 민족, 자원(물과 석유), 중동 내 패권주의[8]로 인한 분쟁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이러한 분쟁의 주체자가 국가임이 드러났고, 국가 내 분쟁은 소수민족과 소수 종교 간의 분쟁임이 드러났다.[9] 국가 혹은 국가 내 분쟁은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바로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는 현상이 그것이다.[10] 자국 내의 분쟁은 결과적으로 자국민들이 '낙인찍힌 몸'이 되어 같은 국가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공존할 수 없는 대상으로 적대하게 된다.[11]

---

4) Pascal Boniface, *La Géopolitique* 『지정학』 최린 옮김 (서울: 가디언, 2019), 58-62.
5)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89023&cid=40942&categoryId=33222 2019년8월23일 접속인용.
6) Paul L. Hughes & Robeert F. Fries, *European Civilization-Basic Historical Documents*- (USA: Littlefield, Adams & Co, 1965), 5-15.
7) 최춘식 외 4인, 『지중해의 전쟁과 갈등』, 22.
8) 정의길, 『지정학의 포로들』 (서울: 한겨레출판, 2018), 17-107.: 정의길은 세계의 패권싸움은 지정학의 문제로 보고 있다.
9) Alfred Guillaume, *Islam* (Cox & Wymun Ltd. Reading: Penguin Books, 1983), 14-15. 지중해는 지정학적으로 다양한 기독교적 색채를 띤 교파들로 아랍기독교(Arab Christianity), 희랍 정교회(Greek Orthodox), 기독교 단성론자(Monophysite,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결합된 단일성을 갖음), 네스토리아(Nestorian) 그 외에 이슬람(Islam)이 있다.
10) 김영미, 『세계는 왜 싸우는가』 (경기파주: 김영사, 2019), 50.

2. 대화와 문명의 시공(時空)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중해를 일컬어 기호(記號)와 이미지의 산실이자 고대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한다. 지중해를 방문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중해에 대해 막연한 동경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 지역을 가면의 제국으로 인식하거나 이해한다.[12] 그러나 지중해는 서양의 산업혁명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상진은 지중해에 대하여 "지중해는 더 이상 문명의 호수가 아니다. 지중해는 한때 '그리스의 바다,' '로마의 바다'로 불렸지만, 그 이후에는 '이슬람의 바다'[13]였고, 그 이전에는 '아프리카의 바다'였다"고 말한다.[14] 그의 주장대로 지중해는 문화의 바다일 뿐 아니라 세계의 문명을 선도하는 지역이다. 그런데 오늘날 지중해는 사건, 정치, 인간이라는 세 개의 구조가 연계되어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지중해가 유럽의 현실주의적인 패권주의에 휘말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박상진은 '유럽은 근대 이전까지 지중해 문명의 한 주변'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그런 늦깎이가 수백 년의 변신을 통하여 세계사의 주역이 된 것이 놀랍다'는 그의 논리에 동감한다.[15] 지중해 주변에 있는 유럽과 중동은 지정학적인 구조와 보수적인 사회, 회복 불가능할 것 같은 경제 위기, 오랜 역사를 보존해 온 문명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유럽이라는 제국의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중해 지역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지중해는 오랫동안 인류 역사의 문명을 간직한 곳으로 모든 국가,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동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어떠한 경계도 그을 수 없는 곳이다. 지중해는 대화와 나눔과 공유가 있는, 동서양의 문화교류(交流)를 위한 관문(關門)이다. 지중해의 문명교류와 상생과 대화에 대하여 박상진은 "지중해성 기후에 올리브가 자라고 올리브 교역은 지중해의 문명교류를 이루어 지중해를 확신시키는 동시에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다."고 정리한다.[16]

지중해는 인류 역사와 문명을 시작한 곳이다. 자연을 형상화한 예술, 역사와 문학, 다양한 인종과 언어, 종교와 신화 등이 발현하고 공존하는 곳이다. 이 지역은 과거에서 현재까지도 다양한 문명의 교류를 통한 대화와 시공이 공존하는 융복합적인 지역이다. 지중해는 다양한 문화와 인종 간의 대화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전쟁과 사회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곳이다. 반면, 지중해의 문화는 전쟁과 분쟁, 사회적 갈등 그리고 성급함 때문에 전통적 문화를 잃어버린 곳이기도 하다.[17]

지중해에서 발생하는 전쟁을 살펴보면, 적대자들의 상호이해가 충돌하거나 국가 혹은 개인의 이익이 손실을 입게 될 경우, 사회적 갈등 관습과 규범을 뛰어넘을 때 발생한다.[18] 이 때 적대자들이 공간적 인접성과 문화적 인접성의 크기 문제가 전쟁의

---

11) 염운옥, 『낙인찍힌 몸』 (경기 파주: 돌베개, 2019), 264.
12) 박상진, 『지중해학-세계화 시대의 지중해 문명-』 (경기: 살림, 2012), 3-4.
13) John Julius Norwich, *The Middle Sea: a History of the Mediterranean* 『지중해 5,000년의 문명사(상)』 (서울: 뿌리와이파리, 2009), 131-153.
14) 박상진, 『지중해학-세계화 시대의 지중해 문명-』, 4.
15) 박상진, 『지중해학-세계화 시대의 지중해 문명-』, 4.
16) 박상진, 『지중해학-세계화 시대의 지중해 문명-』, 6.
17) Bill Fawcett, *Mistakes That Changed History* 『세계사를 바꾼 49가지 실수』 권춘오 옮김 (서울: 생각정거장, 2019), 64-69.

원인이 되고, 전쟁의 특성을 결정짓기도 했다.[19]

결과적으로 볼 때 지중해는 인류 문명의 대화를 위한 시공간의 역할을 하는 관문이기도 하지만 걷잡을 수 없는 갈등의 고리가 있는, 일촉즉발의 화약고와 같은 곳이다. 역사적으로 지중해 지역은 다양한 사슬에 놓여 있다고 보면 된다.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은 지중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20]

> 우리 앞에 두 종류의 견고한 사슬이 놓여 있다. 하나는 최근 20-30년 간의 연구를 통해서 재구성된, 경제적 사건들과 단기간의 국면들로 짜인 사슬이며, 다른 하나는 이미 오래 전에 목록이 작성된,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적 사건, 전쟁, 외교, 국가 내부의 중요한 결정과 격변으로 만들어진 사슬이다.

위의 글의 핵심은 지중해 지역의 역사가 문화와 문명의 대화를 통한 정치였음을 알 수 있다. 정치는 사회문화적 또 다른 집단과의 갈등과 화해를 만드는 도구이다. 정치적 흐름에 따라 경제와 사회적 현실의 질서와 규범이 지켜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 이처럼 지중해는 대화와 문명의 시공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3. 국가 내외의 분쟁 결과: 난민

지중해 지역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조금만 속살을 들여다보면, 분쟁과 갈등,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지정학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 지역에서 분쟁과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분열은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난민이다. 난민에 관한 문제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되는 현상이지만 지중해를 둘러싼 내외적 분열은 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다.

분쟁의 역사는 인류가 활동한 모든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진행형 역사이다. 지중해의 평화를 갈망하는 국가가 많이 있지만 잠시 뿐으로, 각자 자신의 이권을 위해 분쟁을 일으켜왔다. 지중해에서 세계전쟁의 재개와 종결은 1550-1559년이고, 이 시기는 침울한 분위기가 계속되었다. 5-6년 전에 중단되었던 분쟁이 다시 시작되었다. 지중해 전역에서 전쟁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한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주변국들 또한 긴장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이 전쟁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으로, 모든 국가와 사람들에게 불편할 수밖에 없다. 죤 줄리어스 노리치(John Julius Norwich)는 *The Middle Sea: a History of the Mediterranean* (『지중해 5,000년의 문명사』)란 책에서 "이슬람교는 8세기에 에스파냐, 9세기에 시칠리아 대부분 지역을 정복한 후 그 이상의 영구적인 형태의 영토는

---

18) Henry W. Littlefield, *History of Europe since 1815* (New York: Barnes & Noble Inc. 1966) 174-183, 24-275.

19) 최춘식 외 4인, 『지중해의 전쟁과 갈등』, 47.

20) Fernand Braudel, *La Méditerranée et le monde méditerranéen à lépoque de Philippe II* 『지중해: 펠리페 2세 시대의 지중해 세계Ⅲ-사건·정치·인간-』 임승휘·박윤덕 역 (서울: 까치글방, 2019), 13.

획득하지 못했다고 보면서도 지중해 유역의 기독교 국가들은 이슬람교도들을 그 어느 때보다 가공할 위협으로 보았다. 이탈리아 남부와 프랑스 남부지역을 비롯해 이슬람교의 비공식적인 이슬람교 식민지들도 주변 기독교 국가들에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21]고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지중해 지역에서 이슬람교는 주변의 기독교 국가들을 비롯한 모든 종족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였다. 8-9세기의 이슬람교의 분쟁과 갈등이 지중해 주변국의 평화를 깨는 것이었다면, 그들은 왜 이 같은 분쟁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였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슬람교의 세력 확장[22] 시기에 로마 제국 황제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슬람의 위협 앞에 로마의 황제가 무력한 시기도 있었다. 하지만 유럽 지역에서는 이슬람교의 세력 확장을 환영하지 않았고, 10세기부터는 기독교의 저항이 차츰 거세지기 시작했다. 975년 프랑스 남부에서 이슬람교도의 정착민들이 축출되기 시작하면서, 이슬람 축출 활동은 지중해 전역으로 확산되었다.[23] 지중해는 지정학적으로 종교의 영역확장으로 인한 분쟁이 심화된 지역이다. 종교적 영역확장으로 인한 삶의 질 하락으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사람들은 고향과 고국을 떠나야 한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와 이슬람교[24]의 전쟁은 평화 파괴에 일조했다. 역사적으로 고대 그리스, 공화정 시대의 로마, 제정 초기의 로마 시대를 거치는 시기는 비교적 평온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지만, 이슬람과 중세 이탈리아 간의 다툼, 그리고 이슬람에 대한 기독교의 반격이 거듭 진행되면서 지중해는 혼돈으로 빠져들었다. 그 후 레판토 해전과 에스파냐의 음모, 크레타섬과 펠로폰네소스 반도, 에스파냐 왕위계승 전쟁을 비롯하여 지브롤터 공방전과 청년 나폴레옹, 나폴리 간주곡을 비롯하여 나폴레옹 이후의 이집트, 유럽의 재편, 그리스 독립전쟁을 거쳐 이집트와 수에즈 운하, 발칸 전쟁, 제1차 세계대전,[25] 제2차 세계대전과 파리평화회의가 개최될 때까지 지중해 지역에서는 분쟁으로 인한 난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26]

난민은 전쟁과 빈곤, 정치, 경제적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나,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통합할 수 없는 환경과 분쟁에 의해 발생한다. 최근에는 자국 내의 분쟁과 테러[27]로 인한 난민, 인종과 종교의 차별로 인한 난민도 발생하고 있다.[28]

---

21) John Julius Norwich, *The Middle Sea: a History of the Mediterranean,* 195.

22) 도현신, 『지도에서 사라진 나라들』 (경기: 서해문집, 2019), 63-73.

23) John Julius Norwich, *The Middle Sea: a History of the Mediterranean,* 197.: Solomon Sanserif, *ISIS-The Face of Terrorism-* (USA: Middletown, DE, 2016)을 참조하라.: Jessica Stern & J. M. Berger, *ISIS -The State of Terror-* (London: Bound In UK, 2015), 33-52.

24) 장훈태, 『최근 이슬람의 상황과 선교의 이슈』 (서울: 도서출판 대서, 2011), 256-284를 참조하라.

25) Henry W. Littlefield, *History of Europe since 1815,* 175-180.

26) Robert Gerwarth, *The Vanquished* 『왜 제1차 세계대전은 끝나지 않았는가』 최파일 옮김 (서울: 김영사, 2018), 324.: 아직도 세계는 1차 대전과 같은 다양한 방법의 전쟁이 진행중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으로 인한 난민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빈약한 자를 위한 조약들은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7) Ibn Warraq, *The Islam in Islamic Terrorism: The Importance of Beliefs, Ieas, and Ideology,* 『이슬람 테러리즘 속 이슬람』 서종민 역 (서울: 시그마북스, 2018), 207, 209-214을 보라.

28) 2017년 7월. 서부아프리카 니제르에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다. 사하라 사막을 통과하여 리비아로 가는 난민들의 수(數)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난민들은 사하라에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 들었다. 사하라 사막 횡단의 난민들은 무르주크, 트리폴리, 마라케시, 카이로 뱅가지 등등의 지역으로 흩어져 지중해로 진입한다.

이러한 난민은 돌아갈 곳이 없는 자를[29] 말한다. 고향이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난민의 삶은 불안정하고, 편견과 차별로 인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30] 난민은 분쟁과 전쟁에 의한 빈곤을 겪어야 할 뿐 아니라, 국가의 이기주의와 인도주의, NGO 단체들의 규칙과 규범에 의한 행정조치에 대한 실망을 경험해야 한다.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와 도덕적 가치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난민은 인종주의와 피부색[31]에 의한 불평등을 받는다. 인종차별[32]이 낳은 비극은 지금도 지중해 지역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난민들 사이에서도 피부색이 다를 경우, 그들 그룹 사이에서 또 다른 인종 불평등을 받는다. 그리고 국내외적인 분쟁은 난민들의 자존감 약화와 더불어 이들에게 열등한 민족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이는 난민들이 인간으로서 큰 비전을 갖고 위대한 일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수 없도록 만든다. 이러한 불평등을 야기하는 국가 대 국가의 분쟁은 난민 발생의 주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국경 장벽을 높이고, 지문인식 시스템 도입과 안면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생체 여권 개발 추진을 비롯한 인간의 인권 파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지중해는 지정학[33]적으로 토착문화와 이주민들의 문화가 융합된 곳이자 다양한 문화접촉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는 곳이다. 문화접촉 상황의 단초는 전쟁, 정복, 종교 전파라 할 수 있으며, 문화 간의 충돌과 수용, 융합의 교류로 인한 이문화 융합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34] 지중해는 지정학적으로 동서 문화교류의 관문지역일 뿐 아니라 언어학적으로 다양한 언어접촉 현상으로 인해 사회통합이 어려운 곳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중해 지역의 평화의 지속 여부는 다양한 이문화의 유입과 내외부적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상호 충돌하는 현상, 사회상황의 급속한 변화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Ⅲ. 지중해의 지속 가능한 평화 함의

1. 문명 발상지의 독재정권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지중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매혹적인 동시에 가장 잔혹한 전쟁과 분쟁, 그리고 문명교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지중해는 인류 문명의 집합장소인 동시에

29) 염운옥, 『낙인찍힌 몸』, 35.
30) 서동일, “90만 난민 경제활동 허용 에티오피아의 색다른 실험”, 「동아일보」 2019년1월22일.
31) 염운옥, 『낙인찍힌 몸』, 39.; 피부색에 가장 가까운 근대 라틴어는 콤플렉시오(complexio), 영어에서는 콤플렉시온(complexion)이다. 안색, 혈색, 체질, 기질 등으로 번역할 수는 있으나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32) 크리스티앙 들라캉파뉴, *histoire du racisme* 『인종차별의 역사』 하정희 역 (서울: 예지, 2013), 204.
33) Peter Zeihan, *The Absent Superpower* 『셰일혁명과 미국없는 세계』 홍지수 옮김 (서울: 김앤김북스, 2019), 406.: 저자는 “지정학은 결국 선택지들과 제약들 사이의 균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말한다.
34) 장니나, “골 어를 통해 본 토착문화의 이문화 융합 현상 분석연구”, 「프랑스학 연구」 제57권 (2011. 08), 371-341.; 최춘식 외 4인, 『지중해의 전쟁과 갈등』 (경기: 한국학술정보(주), 2012), 189에서 재인용.

언어와 다양한 종교의 흐름을 보여주는 곳이다. 하지만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문화와 언어, 관습, 종교적인 차이성을 인정하면서 상호보완을 통한 사회문화적 통합을 이루기가 어려운 지역이기도 하다.

뒤르케임은 사회적 결합(cohésion sociale)이 사람들의 유사성 즉 기계적 연대로 더 이상 보장될 수 없음을 보았다고 주장한다. 뒤르케임은 자신의 이론에서 '사회적 통합은 공동체와 본질적으로 대립된다.'고 주장하며, 사회에서 강조하는 통합은 중앙정부, 인종, 문명, 언어, 정신을 비롯한 국가적 특징 또는 경계선이 그어진 국경, 중개자로서의 인물, 씨족, 집성촌, 부족, 왕국, 봉건대지주를 거쳐 시민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라 한다. 그러나 현재 지중해 지역의 각 국가들은 평화적인 방식 속에서 사람들의 평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인간 집단을 구성하고 있지만, 각 국가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다.[35] 그렇다면 뒤르케임(Durkheim)의 사회적 통합문제 이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다. 또한 지중해 지역에서 주로 발생되는 시민적 권리, 법률적 권리, 정치적 권리의 평등성으로 정의된 공통된 시민권만으로 평화가 주어질 수 있다고 하기에도 어렵다.[36]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학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주제이지만 사회학자들에게도 이 지역의 문제는 쉽지 않다.

과거 사회와 통합을 강조하는 학자들의 이론이 명료할지라도 한 국가 혹은 지역에서 사회적 통합과 제도, 공동체의 통합을 파괴하는 독재정권이 등장하거나 종교적 교리를 앞세워 독재를 일삼는다면 평화는 지속될 수 없다. 물론 독재자의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하게 되면 민족 간, 종교 간에 갈등과 분쟁을 하나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반대하거나 맞서는 사람이 있으면 축출하는 등 공포정치를 자행하게 되는데, 공포정치의 존재 자체가 평화로운 사회가 아니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독재정치로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

지중해는 지정학적으로 볼 때 독재 혹은 통제사회보다는 자유민주주의를 통한 대화와 여러 국가사회를 구성하는 국민들 사이에 충분한 동질성이 있을 때만 통합을 통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한 사회를 평화로운 사회, 통합된 사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어릴 때부터 공동체의 생활양식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질서와 생활양식을 교육하는 일이 필요하다.[37] 또한 참된 민주주의적 평화는 각국의 정치지도자들과 국민 모두가 '규율과 책임'을 의식해야 이룰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없는 민주주의는 혼돈만을 뜻한다.[38] 사회적 분쟁과 갈등[39]을 통합하고 평화로운 지역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유엔과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국민들이 받은 고통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지중해 주변국들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책임을 갖는 유엔과 세계보건기구가 연합하여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고통스러워하는 사회구

35) Schnapper Dominique, *QU'EST-CE QUE L'INTEGRATION*『통합이란 무엇인가-유럽의 이민자 통합-』임지영 역 (경기: 이담북스, 2007), 36-43.
36) Schnapper Dominique, *QU'EST-CE QUE L'INTEGRATION*, 30.
37) Schnapper Dominique, *QU'EST-CE QUE L'INTEGRATION,* 36.
38) Jared Diamond, *UPHEAVAL*『대변동-위기, 선택, 변화-』강주헌 옮김 (서울: 김영사, 2019), 251.
39) Jun. Ho Jin, *Religious Fundamentalism and Pluralism in Asia* (Colorado Springs: International Academic Pub., 2002), 162-167.; 국가 혹은 공동체의 분쟁과 갈등의 핵심은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데올로기로 변질되는 것에서 시작된다.

성원들을 위한 치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 자국 보호주의와 이기주의 극복

1) 전통을 존중하는 문화

지중해의 레반트[40](Levant) 지역은 오랜 중동의 문화가 뿌리 깊은 곳이다.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이 든 사람들은 구전(口傳)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데, 이 방식을 통해 마을 주민들의 생활방식과 해석에 대한 기억을 포착하려고 노력한다면, 이 지역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 어느 정도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된다.

최근 들어 지중해를 비롯한 주변국들에서 자국보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지역은 혈연문화, 법이자 삶의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종교(이슬람), 지중해의 정체성을 띤 언어, 그리고 시와 서사의 세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런 문화적 전통과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지역에 다양한 문화, 종교와 언어의 유입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고, 이질적인 존재들로 인해 자신들의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를 공유하는 것에서 분쟁과 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이 지역에 서로 서로가 지역을 차지하려는 패권주의가 팽배해지면서 평화스러운 분위기는 사라지게 되었다.

지중해는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정통적 민족주의를 지키는 것이 지정학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곳이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가 펼쳐진 것 같은 지정학적 형태도 그렇지만 지중해를 이용하여 누구든지 어디로든 왕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지중해는 문명과 종교, 인종적 실체가 존재한다는 믿음 아래에 자신의 공동체가 아닌 침입자와 이민자, 난민들을 모두 외부침입자로 규정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지중해의 사람들은 인종적, 국가적 정체성이 외부 세력으로 인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에 집착한 결과, 언제나 분쟁요인을 지니고 있다. 이 집착은 국가보호주의와 이기주의를 낳고, 주변국을 향하여 울타리 세우기를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분쟁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중해는 다양성이 있어 선택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지니고 있다. 지중해 지역에는 다양한 문화교류와 종교적 관용, 전통적인 환대문화 등 훌륭한 문화가 있다. 특히 이스라엘과 아라비아 지역은 고대로부터 환대문화(歡待文化)가 강한 곳으로, 이들의 문화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지중해 문화를 통하여 이 지역에 평화가 지속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2) 평화와 공존

지중해 인근 국가 중 하나인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팔레스타인[41]의 저항으로 인해

40)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등 동부 지중해 연안의 여러 나라를 일컫는 역사적 지명이다. 해가 뜬다는 동쪽에 있는 나라를 의미하기도 한다.

41) Tim Marshall, *Prisoners of Geography*『지리의 힘』김미선 옮김 (서울: 사이, 2016), 280-286.

이스라엘 국민들이 안전을 위협받는다는 이유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요르단 강 서안의 경계 지역에 콘크리트와 철조망으로 730여km에 이르는 장벽을 설치했다. 이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완전히 분리하기 위한 조치였다.[42] 하지만 자국민의 위협과 위기라는 명목으로 만든 장벽은 그들의 집을 일방적으로 철거해 버렸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였다.[43]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분리장벽이 불법이라고 판정했고, 국제연합총회에서도 회의를 통해 분리장벽을 반대하는 안건을 결의했지만,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마음대로 왕래할 수 없다. 이 장벽으로 인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받은 고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대항하는 자살폭탄테러를 일으키고 있다.[44] 팔레스타인 청소년들은 민족주의라는 명분으로 자살폭탄테러에 나서고, 이스라엘은 위험을 이유로 콘크리트 장벽을 세워 종족주의(민족주의)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국가와 민족적 이기주의와 보호주의가 팽배하게 대립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분쟁의 해결은 무력충돌이 해답이 아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평화롭게 지내려면 정치권과 국민들의 의식에 '공존'(共存 coexistence, coexist)이 필요하다. 지중해의 비극적인 사건들이 멈추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왜 함께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정치력이 요구된다.

세계의 모든 시민들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 '평화와 공존'을 원한다. 공존은 서로 도와서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문제는 어느 국가든 극단주의자와 정부 지도자, 그리고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자국의 이익과 보호주의를 주장하지 않고, 평화와 공존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45] 이를 위해서는 기득권층에서 정치적인 문제에 치중하기보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노력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3) 욕심이 부른 혼란과 가난

지중해 지역을 비롯한 전 세계의 혼란과 가난, 전쟁은 대부분 지도자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쟁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요인은 풍요 속의 빈곤이다. 사람은 육체적 빈곤을 겪게 되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장사를 하거나 전쟁에 참여하고,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납치와 살인을 서슴지 않게 되며, 이러한 범죄는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된다.

국제연합은 1992년 12월에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을 파견하여 식량을 보급하고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 유지 활동을 하는 단체다. 세계 어느 곳에서든 분쟁이나 기아 등 긴급구호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군대를 파병한다. 분쟁 지역의 대표들은 국제연합과 유엔군의 파견 혹은 압력으로 평화협상에 나서 평화협정에 서명하지만,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된다. 인간이 받은 상처는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치유되지만, 흉터는 여전히 남게 된다.

최근 국제사회에 진행 중인 분쟁과 갈등은 대부분 지도자들의 끝없는 욕망으로 가

42) Hugh kennedy, *The Great Arab ConQuests* (USA: Da Capo Press, 2008), 66-97.
43) 김영미, 『세계는 왜 싸우는가』, 203.
44) 김영미, 『세계는 왜 싸우는가』, 203-204.
45)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공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이'가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난해진 사람들의 고통을 불러온다. 파스칼 보니파스(Pascal Boniface)는 그의 책 *La Géopolitique* (『지정학-지금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서 14가지의 분쟁과 갈등 요인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원인의 대부분은 지도자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게 된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미완의 독립을 하면서 분쟁이 발생한 것 역시 지도자들의 욕심에서 비롯되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 역시 민족주의와 보호주의, 지도자의 정치적 욕심에서 비롯되었음을 보게 된다.[46]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되고, 국민들은 자신감과 애국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고국의 역사조차 잊어버린 채 삶을 이어가기 위해 이주민이 된다.

3. 꿈을 잃은 자, 삶을 잃은 자, 난민

국제사회의 끝없는 분쟁과 갈등은 지정학적 요소가 작용하는 것도 있지만 지도자의 욕망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지도자들의 분쟁은 결국 죄 없는 국민들이 삶과 꿈을 잃어버리도록 만든다. 이 때 국민들은 자신들의 삶을 위해 목숨을 건 이주를 시작한다. 파스칼 보니파스는 "이주민이란 자신의 국가가 아닌 곳에 적어도 1년 이상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이주민은 인류학적, 경제적, 그리고 전략적인 결과를 낳은 집단적 현상이다."라고 정의한다.[47] 이주민은 16-17세기부터 상업적 흐름과 식민지화에 의해 시작되었고, 북반구에서 남반구로의 이동이 대부분이었으며, 19세기 들어 경기침체와 기후변화로 인한 기근이 겹치고, 운송 능력이 향상되면서 급속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48]

20세기의 이주민들은 내전, 재난 그리고 정권의 억압을 피하여 더 나은 삶을 찾아 나선 자들이 대부분이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전 세계 인구의 5%가 이주민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냉전 기간 동안 독재정권과 권력, 특히 공산주의 독재를 피해 자신의 나라를 떠난 자들이 많다.[49] 1975년 베트남에 공산정권이 들어선 이후 프랑스는 17만 명의 베트남 난민을 받아들였고, 이들은 빠르게 프랑스 사회에 동화되었다.

20세기의 이주민들이 대부분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21세기에는 종교와 정치, 자원,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민과 난민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국제이주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2억3,200만 명의 이주민이 존재하며, 이는 현재 세계 인구의 3.3%에 해당되는 수치이지만, 20세기 초반보다는 낮은 수치로 보고 있다.[50] 그러나 국내·외 이주자를 통틀어 전 세계 인구 7명 가운데 1명이 이주자라는 점에서, 이주는 21세기의 메가 트랜드라고 할 수 있다.[51]

이주자, 이주민, 난민들은 정주민 사회에서 낙인찍히고 배제당한 채 '인종화된 몸'으로 생활한다. 염운옥은 "인종화 된 몸을 통해 인종주의의 역사를 말한다는 것은 이

46) Pascal Boniface, *La Géopolitique* , 107-191.
47) Pascal Boniface, *La Géopolitique,* 96.
48) Pascal Boniface, *La Géopolitique,* 96.
49) Pascal Boniface, *La Géopolitique,* 97.
50) Pascal Boniface, *La Géopolitique,* 97-98.
51) http://iom.or.kr/index.php/%ea%b5%ad%ec%a0%9c%ec%9d%b4%ec%a3%bc%eb%9e%80/2019년9월4일 접속인용.

성, 자유, 평등, 생명 같은 단단한 명사들이 얼마나 취약한 지반 위에 서 있는지, 분류의 욕망과 구분 짓기를 통해 인간이 탐욕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 암시하는 작업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다.[52] 이주자,[53] 난민에게 있어 평등은 당연하지만 추상적인 원리에 불과하다. 모든 인류가 평등하게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각 국가마다 개인들이 지니고 있는 무수한 '차이'를 지워야 한다.[54] 인류사회의 평화를 논의하고 이를 선언한다고 해도 이 성명서가 한 장의 종이에 불과하다면, 평화의 가치를 세워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특정 문화와 인간을 공존할 수 없는 대상으로 적대하는 것[55]이 아닌 공존할 수 있는 대상으로 존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지중해의 평화 지속을 위한 해법은 첫째, 지중해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유엔난민협약[56]을 지키는 일이다. 둘째, 지중해 지역의 국가는 난민 유입을 막는 법만을 적용하기보다는, 난민 신청자의 보호와 난민 신청절차, 입국을 위해 필요한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부적인 법 개정을 통해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중해의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민자·다문화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평화의 해법이라 할 수 있다.[57] 셋째, 배타적 민족주의는 지중해 상생체제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극단적 민족주의의 배출을 조절할 수 있는 초국가적 조직이 필요하다. 초국가적 조정자 역할을 맡을 조직이 없을 경우 상호의존적 교역을 통한 지역의 안정과 협력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지중해 지역의 분쟁과 전쟁, 사회적 갈등은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임을 인지하고, 지중해의 지정학적 평화위협을 해소하고 상호공존을 위한 탐색전을 펴면서 갈등의 절충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잃어버린 삶과 행복을 찾으려는 난민[58]들의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직업 알선과 이들에 대한 세금혜택을 통한 경제활동의 자유 확대, 정주민과의 공존의식 확대를 통한 인식 변화이다. 여섯째, 타인과 타국을 희생시켜 부(富)를 획득하는 정실주의(情實主義)가 야기하는 불평등을 제거하는 일이다. 일곱째, 지중해 지역의 오랜 역사적·문화적 교류와 더불어 종교와 문화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을 걷어내는 일도 중요하다.

이상과 같은 제안들은 지중해의 평화를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해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대안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각국, 특히 지중해 지역의 국가들이 평화공존을 위한 협력과 노력을 지속한다면 평화는 가능할 것이다.

---

52) 염운옥, 『낙인찍힌 몸』, 7.
53) 장훈태, 『국제정치 변화속의 선교』 (충남: 도서출판 혜본, 2014), 326-351.
54) 염운옥, 『낙인찍힌 몸』, 7.
55) 염운옥, 『낙인찍힌 몸』, 264. 공존할 수 없는 적대대상은 국경 장벽을 높이고, 지문인식 시스템 도입, 안면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생체여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자, 난민에 대한 평화적 삶은 보장되지 않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존자로 인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56) 한국의 경우는 1992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했다.
57) DARRELL BRICKER & JOHN IBBITSON, *The Hollow Earth* 『텅 빈 지구』 김병순 옮김 (서울: 을유문화사, 2019)을 참조함.: 저자는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 이민자와 다문화주의 수용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어느 국가든 난민과 이민의 장벽을 높이는 것은 자멸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인구감소는 국력, 영향력, 부의 하락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면서 이민, 난민, 다문화주의를 수용할 것을 주장한다.
58) 장훈태, "아프리카 빈곤과 난민선교", 「ACTS 신학저널」 제39권 (2019. No 1), 165-209을 참조.

Ⅳ. 나가는 말

지중해 지역은 역사적·지정학적으로 유서가 깊은 곳일 뿐 아니라, 현재 경제적·국제적으로 분열(Disintegration)이 팽배해 있는 지역으로,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지중해는 지정학적으로 아프리카·아시아·유럽의 3개 대륙에 둘러싸여 있어, 현재에도 동서양을 초월해 전체적인 세계질서를 조절하고 있다. 또한 지정학적 영향으로 서구 문명과 동양 문명, 이슬람 문명의 접촉이 빈번하기 때문에, 분쟁 또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지중해를 둘러싼 분쟁은 국경, 종교, 민족, 자원(물과 석유), 중동 내 패권주의로 인한 분쟁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또 국내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국가 간의 분쟁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분쟁은 중동·이슬람 지역에서 일어나는 분쟁으로, 이 분쟁의 범주와 원인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분쟁은 필연적으로 난민을 발생시키며, 이렇게 발생한 난민들은 빈곤과 불평등,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난민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중해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유엔난민협약을 지키고, 난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여 시행하며, 난민들의 삶을 보장하고 이들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지중해 지역 각 국가들이 독재정권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지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에 대해 우열을 나누는 등의 차별을 철폐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각 국가에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교육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국가의 지도자들을 비롯한 기득권층이 각자의 욕망을 내려놓고 지중해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해결방안에 대해 평화 구축에 대한 일반론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중해 지역의 지정학적 위치가 바뀌지 않는 것처럼, 지중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또한 전 세계가 평화를 유지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중해 지역에 산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중해 지역, 더 나아가 전 세계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미. 『세계는 왜 싸우는가』. 경기파주: 김영사, 2019.
도현신. 『지도에서 사라진 나라들』. 경기: 서해문집, 2019.
박상진. 『지중해학-세계화 시대의 지중해 문명-』. 경기: 살림, 2012.
서동일. “90만 난민 경제활동 허용 에티오피아의 색다른 실험”. 「동아일보」 2019년1월22일.
염운옥. 『낙인찍힌 몸』. 경기 파주: 돌베개, 2019.
이정우. 『세계철학사 1』. 서울: 도서출판 길, 2018.
장훈태. 『최근 이슬람의 상황과 선교의 이슈』. 서울: 도서출판 대서, 2011.
_____. 『국제정치 변화속의 선교』. 충남: 도서출판 혜본, 2014.
_____. “아프리카 빈곤과 난민선교” 「ACTS 신학저널」 제39권 (2019. No 1), 165-209.
정의길. 『지정학의 포로들』. 서울: 한겨레출판, 2018.
최춘식 외 4인. 『지중해의 전쟁과 갈등』. 경기: 한국학술정보(주), 2012.
들라캉파뉴, 크리스티앙. *histoire du racisme.* 『인종차별의 역사』. 하정희 역. 서울: 예지, 2013.
Boniface, Pascal. *La Géopolitique* 『지정학-지금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최린 옮김. 서울: 가디언, 2019.
BRICKER DARRELL. & IBBITSON, JOHN. *The Hollow Earth.* 『텅빈 지구』. 김병순 옮김. 서울: 을유문화사, 2019.
Braudel, Fernand. *La Méditerranée et le monde méditerranéen à lépoque de Philippe Ⅱ.* 『지중해: 펠리페 2세 시대의 지중해 세계Ⅲ-사건·정치·인간-』. 임승휘·박윤덕 역. 서울: 까치글방, 2019.
Diamond, Jared. *UPHEAVAL.* 『대변동-위기, 선택, 변화-』. 강주헌 옮김. 서울: 김영사, 2019.
Dominique, Schnapper *QU'EST-CE QUE L'INTEGRATION?* 『통합이란 무엇인가-유럽의 이민자 통합-』. 임지영 역. 경기: 이담북스, 2007.
Gerwarth, Robert. *The Vanquished.* 『왜 제1차 세계대전은 끝나지 않았는가』. 최파일 옮김. 서울: 김영사, 2018.
Ibn Warraq, *The Islam in Islamic Terrorism: The Importance of Beliefs, Ieas, and Ideology.* 『이슬람 테러리즘 속 이슬람』. 서종민 역. 서울: 시그마북스, 2018. 207, 209-214.
Norwich, John Julius. *The Middle Sea: a History of the Mediterranean.* 『지중해 5,000년의 문명사(상)』. 서울: 뿌리와이파리, 2009.
Littlefield, Henry W. *History of Europe since 1815.* New York: Barnes & Noble Inc., 1966.
Marshall, Tim. *Prisoners of Geography.* 『지리의 힘』. 김미선 옮김. 서울: 사이, 2016.
Sanserif, Solomon. *ISIS-The Face of Terrorism-.* USA: Middletown, DE, 2016.
Stern, Jessica. & Berger, J. M. *ISIS -The State of Terror-.* London: Bound In UK, 2015.
Zeihan, Peter. *The Absent Superpower.* 『셰일혁명과 미국없는 세계』. 홍지수 옮김. 서울: 김앤김북스, 2019.
Fawcett, Bill. *Mistakes That Changed History.* 『세계사를 바꾼 49가지 실수』. 권춘오 옮김, 서울: 생각정거장, 2019.

Guillaume, Alfred. *Islam.* Cox & Wymun Ltd. Reading: Penguin Books, 1983.
Hugh kennedy, *The Great Arab ConQuests.* USA: Da Capo Press, 2008.
Hughes Paul L. & Fries, Robert F. *European Civilization-Basic Historical Documents-.* USA: Littlefield, Adams & Co, 1965.
Ho Jin, Jun. *Religious Fundamentalism and Pluralism in Asia.* Colorado Springs: International Academic Pub., 2002.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89023&cid=40942&categoryId=33222 2019년8월23일 접속인용.
http://iom.or.kr/index.php/%ea%b5%ad%ec%a0%9c%ec%9d%b4%ec%a3%bc%eb%9e%80/2019년9월4일 접속인용.